

현장과 시각

전남 과학교육의 성과



최재호
체육부 차장

“전남과학교육의 명성이 전국에 떨치고 있다. 최근 ‘제54회 전국과학전람회’ 화학부문에 최우수상과 김예찬군이 ‘전통한옥에 쓰이는 못의 내부식성에 관한 탐구’ 작품을 출품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전남과학고 감의룡·김기춘·이대혁군이 식물부문에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창평중 박점순 교사와 도초고 채길우 교사와 농림수산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이번 전시회에서 국무총리상(1명), 최우수상(2명), 특상(8명), 우수상(5명), 장려상(2명)을 수상했다.

올해 전체 출품작 가운데 무려 61.1%가 특상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것이다.

전남도내 학생들은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8년의 전국과학전람회 대통령상 4회와 국무총리상 6회를 수상, 전국 최고의 기록을 세우고 있다. 8년동안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32작품중 전남이 31.3%인 10작품을 차지했다.

도·농간의 교육격차로 어둡기만 한 전남교육의 미래에 한 줄기 서광이 비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과학교육의 성공모델을 보여준 교사와 학생들에게 찬사가 잇따르고 있다.

몇년동안 거둔 성과를 가지고 최소봉대(針小樵大)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과학전람회는 54년 전통을 가진 전국최고의 과학기술경진대회로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거두고 있는 전남 과학교육의 성과는 자랑하고 내세울만 하다. 더구나 전남은 최근 8년간 초·중·고생이 5만2천212명 줄었으며 지난해에 비해 올해 3천485명이 감소하는 등 우수한 인재들이 빠져 나가는 상황에서 이룩한 결과여서 더욱 빛이 난다.

이처럼 전남과학이 전국 최고의 자리에 오른 데는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과학교육신장을 위한 사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과학실험실 현대화를 추진하고 체험·관찰·탐구·실험중심의 과학수업을 전개한 것이 큰 힘이 됐다. 과학교실과 과학동아리 지원등 기초과학교육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과학교사들의 모인교 연구회(20팀) 활동을 지원했다. 또 다양한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킨 것도 학생들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져 전체적인 전남과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지금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전남도교육청은 농어촌 학교 교육의 황폐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어려운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과학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을 위한 노력과 부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lion@kwangju.co.kr

광주·전남 내년도 예산 어떤 사업 반영됐나

R&D특구·J프로젝트 누락·축소

광주 신규 사업 35건, 전남 SOC 확충 52% 차지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 예산 1조6천265억원, 5조2천855억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지난달 30일 광주시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예산안을 올해보다 6.5% 증가한 273조5천억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이날 교사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광주시=정부예산안에 광산업 3단계 사업 등 모두 130건 1조6천265억원이 반영됐다.

그러나 광주시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150억원), 광주 R&D특구 지정·육성(77억원), 국립광주 다문화센터(60억원)등은 정부의 정책 미확충 등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신규 사업 예산으로는 모두 35건, 680억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공예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옹역비 3억원), 미래형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옹역비 5억원), 대단위 산소생산 수목원 조성(10억원) 등이다. 주요 계속 사업으로 호남고속철도 건설(2천572억원), 광주제3순환도로(110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300억원), 빛고을문화커뮤니케이션 건물(80억원) 등 1조5천585억원이 반영됐다.

◇전남도=전주~광양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총 289건에 5조2천855억 원이 편성됐다. SOC 분야 국비 반영금액이 2조7천288억 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함으로써 2012연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와 관광·문화산업 기반 구축 등 지역 역점 시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여수~순천 간 전라선철도개량사업에 1천700억원, 적금~영남간 연도교 건설에 315억 원이 반영되는 등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14개 사업에 모두 1조1천963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신규사업으로는 삼영영화 개발사업(398억원), 천일염 산업화 기반구축(100억원), 서남해안 신재생에너지사업(42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40억원), 대불산단 교량보강 및 도로 확·포장(55억원), 200억원) 등 대부분 사업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남도의 역점 사업인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와 관련된 예산은 사업 승인계획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진입도로 개설비(20억원) 등 대부분의 사업을 반영하지 않았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미 구제금융안 부결 원인과 전망

“월가 금융인들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상상할 수 없었다” 미국 정부가 고스려운 금융위기를 타개할 수 밖에 없었던 7천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조치가 29일 시중에 들어가기도 전에 미 하원에 의해 ‘법안 부결’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이같은 예기치 못한 부결의 배경에는 대중의 거센 반발과 함께 국가의 개입을 지나치게 허용한 구제금융안 자체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반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국민의 분노 상상초월
표의식 공화 의원 반대 물표

“구제금융입법안이 얼마 부결될 것느냐”는 생각 하에 이같은 유권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투표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폭스비즈니스닷컴이 이날 보도했다.

228명의 의원이 이같은 정치적 결정에 관승하면서 애초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11명이나 많아지면서 빛어진 상황이라는 것. 실제 폭스비즈니스닷컴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 가량이 구제금융

안에 찬성할 의원에 표를 주지 않겠다고 답한 반면 표를 주겠다는 답변은 10%에 불과했다. 또 법안 논의 초기부터 발목을 잡았던 공화당 의원들의 뿌리깊은 국가개입에 대한 반대성향도 부결을 야기한 주요한 배경이 됐다.

이와 관련, 반대표를 던진 의원 다수는 ‘구제금융 입법안이 얼마 부결될 것느냐’는 생각 하에 이같은 유권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투표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폭스비즈니스닷컴이 이날 보도했다.

228명의 의원이 이같은 정치적 결정에 관승하면서 애초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11명이나 많아지면서 빛어진 상황이라는 것. 실제 폭스비즈니스닷컴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 가량이 구제금융

안에 찬성할 의원에 표를 주지 않겠다고 답한 반면 표를 주겠다는 답변은 10%에 불과했다. 또 법안 논의 초기부터 발목을 잡았던 공화당 의원들의 뿌리깊은 국가개입에 대한 반대성향도 부결을 야기한 주요한 배경이 됐다.

이와 관련, 반대표를 던진 의원 다수는 ‘구제금융 입법안이 얼마 부결될 것느냐’는 생각 하에 이같은 유권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투표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폭스비즈니스닷컴이 이날 보도했다.

228명의 의원이 이같은 정치적 결정에 관승하면서 애초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11명이나 많아지면서 빛어진 상황이라는 것. 실제 폭스비즈니스닷컴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 가량이 구제금융

안에 찬성할 의원에 표를 주지 않겠다고 답한 반면 표를 주겠다는 답변은 10%에 불과했다. 또 법안 논의 초기부터 발목을 잡았던 공화당 의원들의 뿌리깊은 국가개입에 대한 반대성향도 부결을 야기한 주요한 배경이 됐다.

이와 관련, 반대표를 던진 의원 다수는 ‘구제금융 입법안이 얼마 부결될 것느냐’는 생각 하에 이같은 유권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투표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폭스비즈니스닷컴이 이날 보도했다.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날 30일 오전 (현지시간) 흐루니체프 우주센터를 방문, 네스테로프 우주센터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4강 외교’ 완성... 자원·에너지·과학기술 교류 확대

이명박 대통령 러시아 방문 성과와 결산

이명박 대통령이 3박4일간의 러시아 공식방문 일정을 무난하게 소화하고 1일 특별기편으로 귀국한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지난 2월말 취임 이후 7개월여만에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국과의 관계설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러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는 양국 관계를 기존 ‘상호 보완적인 건설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시킨 것이 우선 꼽힌다.

아울러 최근 북한이 핵실험 복귀 조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6자회담 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의장국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향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또 자원·에너지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간 구체적, 실질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합의한 것은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및 자원외교의 가시적인 성과라는 것이 청와대의 자평이다.

실제 양국은 이번 이 대통령의 방러를 계기로 단기복수사증 협정, 광물자원 협력약정, 나노기술 공동협력 양해각서, 금융협력 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려 26개 협정을 체결했다.

특히 양국은 러시아에서 북한을 경유해 우리나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가스배관 건설 사업에 합의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원공급은 물론 향후 남북간 다양한 경제협력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 기대도 모았다.

이밖에 양 정상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지역기구를 내세워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테러나 대량살상무기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외교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힌 것으로 평가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인도 힌두사원 암사 사고...사망 200명 육박

30일 인도 서부 라자스탄주(州)의 한 유대 힌두교 사원에서 대형 암사사고가 발생, 힌두 축제에 맞아 사원에 모인 참배객 다수가 참변을 당했다.

정확한 사상자 집계가 지연되는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사망자가 200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라자스탄주 잿포프의 차문다 사원에서 힌두 축제를 맞아 모였던 신도들이 한꺼번에 좁은 도로로 몰리면서 암사 사고가 발생했다. 경 찰당국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최소 140명이 숨지고 150명 이상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다수 있어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현지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인터넷에서 자체 집계결과 지금까지 17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으며, 뉴스전문 채널 CNN-IBN은 사망자가 147명, 부상자는 425명이라고 보도했다. 9일간 계속되는 힌두교 축제 ‘나바 라트리’ 첫날인 이날 사원에는 1만5천~2만명 가량의 힌두교도들이 몰렸다. 목격자들은 사원에 모였던 사람들 중 일부가 갑작스레 뛰기 시작했고 이어 사람들이 뒤를 따르면서 참변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Includes contact info: 062-222-8446, H.010-3666-8446. Lists various real estate projects with details on location, area, and price.

Advertisement for overseas job training. Title: '해외취업 연수생 모집!! (일본/분야)'. Focuses on 'JAVA 프로그램 개발자' training. Includes contact info: 062-605-8008, 2,4. Website: http://www.honam.or.kr